

‘마을에서 길’ 찾은 종교 지도자들

남원 실상사서, 8월 21~23일 열려

정부의 개신교 편중 종교편향 시비가 사회적 이슈인 때,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대화마당을 열어 눈길을 끈다.

8월 21~23일 남원 실상사에서 ‘마을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종교인 대화마당에는 불교에서는 불교환경연대, 예로부터,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원불교에서는 천지보은회가 참가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에서는 각각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와 서울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창조보전전국국민이 동참했다.

행사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인 도법 스님의 ‘21세기의 희망, 공동체 왜 마을공동체인가-마을공동체의 철학과 세계관’을 시작으로 정규호 선임연구원(모심과살림연구소)의 ‘지역(마을)공동체와 사회(국가)시스템으로서 풀뿌리 거버넌스’,

김용우 지역농업위원장(원주협동조합농협의회의)의 ‘마을공동체와 자립 그리고 지역’, 염선업 회장(이슬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의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해서’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펼쳐졌다.

종교 환경단체의 사례를 통한 미래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불교의 산내마을(왕영술), 개신교의 민들레공동체(류기식), 천주교의 쌍호공동체(맹주형), 원불교의 살고자픈 영산마을(이태욱) 등 각 종교의 마을 공동체의 소개를 통해 참석자들은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올해 7회를 맞는 종교인 대화마당은 미래사회의 대안적 삶의 한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생명의 질서와 인간 삶의 모순 극복과 대안 마련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엔 종교편향 없어요”

무등산 풍경소리 6주년 기념음악회



8월 23일 광주 중심사에서 열린 무등산 풍경소리 6주년 기념 음악회에 가수 김두수씨가 노래하고 있다.

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와 예술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무등산 풍경소리(이사장 지장은 8월 23일 무등산 중심사 문화광장에서 김희택, 박원근, 임의진 목사 등 300여명의 종교인과 예술인, 광주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6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6년간 매월 1회씩 64회의 공연을

통해 종교지도자간 만남의 장을 이뤘던 행사는 6주년을 맞아 풍물패 클럽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포크 가수 김두수의 노래, 사토유기예와 수니의 노래공연에 이어 임의진 목사의 이야기 마당으로 진행됐다.

생명과 환경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음악회는 사찰은 물론 교회와 성당에서도 열렸고, 광주생명의 숲,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참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기 부처 낳아 키우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운사에서 세대통합교육 열어

세계 최저인 국내 출산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때, 가족해체가 심각한 농촌분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이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8월 28일 지역불자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행복한 우리가족 공동체를 위한 세대통합교육’(이하 행복공동체교육)을 개최했다.

행복공동체교육은 건강한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을 위해 마련된 저출산 문제 극복 프로그램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용권)가 연구개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건강하고 양육환경 조성사업’ 사업공모에 선정돼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처음 시행됐다.

행복공동체교육은 임혜영 교수(성균관대), 김일명 교수(동국대), 이영호 센터장(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최보아 연구원(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을 강사로 8시간 동안 열렸다.

임혜영 교수는 “저출산 사회! 세상이 변하다”를 주제로 한 교육에서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이



8월 2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선운사에서 ‘행복한우리가족 공동체를 위한 세대통합교육’을 개최했다.

행은 직접적으로는 젊은 불교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승가 구성원의 급격한 감소 등을 초래해 사찰의 경제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김일명 교수는 “부부함께 성장하기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에 있어 자녀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 출산, 자녀양육, 가정 내 성평등 구현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유도”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1983년부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도달했다”며, “지역사찰이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 종단과 함께 직접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라 말했다.

한편 6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행복공동체교육’은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계종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12개 사찰의 신청을 받아 운영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소조상 ‘신비한 속살’ 드러내

예원예술대 문화재보존연구소 ‘감마선’ 촬영...뚜꺼운 나무 사용 특징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 지장전 소조상이 감마선 촬영으로 신비로운 속살을 드러냈다. 예원예술대 문화재보존연구소는 8월 14일 송광사 지장전 내 도명존자상과 시왕상 2구, 판관 1구, 동자상 1구, 인왕상 1구 등 지장전 좌우상과 시왕상 및 권속 30구에 감마선이 촬영을 실시했다.

감마선이 촬영을 진행한 전경미 교수(예원예술대 문화재보존연구소)는 “기존 소조상에 대한 이해는 서양식으로 각목을 열심자로 세운 후 세 끼줄이나 끈을 묶어 그 위에 흙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으나, 송광사 소조상은 상의 대부분을 두꺼운 통나무로 세우고 1~2cm 정도

로 흙을 붙이고 그 위에 천을 대고 채색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전 교수는 “각 상의 머리와 목, 목과 가슴, 팔뚝, 발목 부분과 두 손을 앞으로 해 합장하거나 지를들 가지고 있는 등 흙이 떨어지기 쉬운 곳에는 철판을 제작해 꿰었다”며, “지난해 익산지역 송림사 영원전 시왕상과 나한전 나한상, 심곡사의 시왕상을 촬영했던 문화재보존연구소 측은 송광사 상들은 뚜꺼운 통목재를 사용했으나, 익산지역 상들은 기본적인 각목을 열심자로 세운 뒤 흙을 더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2~3개 덧댄 형식이었다”고 분석했다.

전경미 교수는 “송광사는 금강문

의 금강역사상, 천왕문의 사천왕상, 대웅전의 삼세불상, 나한전의 나한상 등 모든 불상이 소조로 제작된 ‘한국 소조상의 보물창고’”라며, “2004년 천왕문 사천왕상과 2006년 금강문 금강역사상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또는 감마선이 촬영을 하지 않아 중요한 자료들을 잃어버리고 사용된 안료와 섬유의 분석 또한 폐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촬영된 지장전 소조상 상태에 대해 전경미 교수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뒷쪽이나 접합 부분 등은 보수가 요구된다”며, “모든 소조상에 대한 경화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금산사 복지원 노인일거리마련센터

상자접기에서 볼펜조립까지...

노인일거리마련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노인 소득을 창출하는 금산사 복지원(대표 원행·금산사 주지) 노인일거리센터를 찾았다.

300평 남짓한 작업장에 들어서자 산더미 같이 쌓인 종이상자가 사업장 규모를 짐작케 한다. 7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전주시에 위치한 회사들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제작하는 일. BYC·쌍방울·보디가드 등 속옷 전문제작회사의 속옷 상자접기를 비롯해, 수출용 볼펜 조립, 철근 자르기, 유아복 가공 등

작업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수입도 늘었다.

이성강 센터장은 “전국 유통 메리아스 상자 2개 중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 달에 130만장, 일년에 1500만 장의 상자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섬유와 종이제조 등 경공업이 발달한 전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곳의 메리아스 상자 수요는 매우 높는데 이를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하면서 지역적 요구와 맞아떨어질 덕택이다.

새로 시작한 주름등 만들기, 영가우 만들기 등 불교용품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열쇠조립



“정성 깃든 제작에 주문량 늘어”

다양하다. 사찰에서 생전예수제나 49재때 사용하는 종이 영가우와 주름등 제작도 빼놓을 수 없는 제작품이다.

2001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대부분 회사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노인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성강 센터장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한두 업체가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고, 철저한 재고과와, 품질관리, 납품기간 이행, 생산성 향상으로 일거리를 늘려갔다.

처음에는 마늘까기, 봉투 붙이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맡아 했지만 지금은 더욱 기술을 요하는

과 볼펜조립도 주문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직 교장 선생님이던 한규준(전주시 평화동·78)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이 나이에 일을 하니 기쁘다. 일을 하며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 아들 부부가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성강 센터장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점점 육성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늘어가는 노인인구를 감안해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063)223-7481 조동제 전북지사장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전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전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전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주)에이치비엠티